

수능국어

2022^판

짜장

원리와 유형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와 유형문제 제시
- 2021/20/19/18 수능형 고난도 문제 수록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수능국어 짜장

표지 안쪽

수능국어 2022^판

정

원리와 유형

문법/화법/작문 편

이성호 저

- 기출 수능 문제 역추론 원리와 유형문제 제시
- 2021/20/19/18 수능형 고난도 문제 수록
- 전 EBS 출제 위원 저작

수능국어 정

이 책을 지은이

이성호 선생님

서울 여의도고, 언남고, 양재고, 방산고, 문현고, 서초고를 거쳐 현재 이성호 수능/내신 국어 연구
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EBS 국어영역 출제위원

전 아이러브언어닷컴(www.iloveuno.com) 수석 출제·상담위원

수능 국어 짱 원리와 유형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산문문학편〉 〈독해편〉 〈문법/화법/작문
편〉 집필 (수능국어 짱 간행)

수능 국어 방법은있다 〈현대시/고전시가편〉 〈현대 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편〉 〈독해/논리편〉
〈문법/화법/작문편〉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 국어 만점과 3점·취약점도 마물 방법은있다 집필 (도서출판 방법은 있다 간행)

수능 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실전모의고사 집필 (수능국어 짱 간행)

EBS 고교국어듣기 (공저, 한국방송공사 간행)

한국고전대표설화 집필 (편저, 관동출판사 간행) 백범 김구 집필 (현대어역저, 관동출판사 간행)

한국 수능 학습지 출제 위원 역임



수능 국어 짱 원리와 유형 - 문법/화법/작문 편

지은이 | 이성호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지은이에게 있습니다. 이 책은 구매한 개인만 개
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이 책의 체제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습니다.

수능국어 짱 원리와 유형 신판에 붙여

2022년 새로운 입시 체제와 신교육과정에 맞춰 새롭게 만든 국어 짱 원리와 유형 신판을 올립니다. 개정교육과정을 포함한 모든 최신 원리를 망라하려 했고, 연습해 볼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실어 다섯 권의 책으로 제시합니다. 곧 독서, 문법/화법/작문, 현대시/고전시가, 현대·고전 소설/수필/희곡/시나리오, 실전모의고사 등의 다섯 편입니다. 감히 결정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문법/화법/작문편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를 보다 구체화시켜 제시하고 이를 적용하는 신유형 모의 문제를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싣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어휘를 선정·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이 책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다 쉽게 지식적 측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능국어 짱 원리와 유형’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리와 유형 문제를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지은이 올림



차례

제1부 문법과 어문 규정

㉔ 2021학년도 수능능력시험 화법작문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8
0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음운론	25
유형문제 37	
02. 형태론	40
유형문제 60	
03. 통사론	65
유형문제 84	
04. 담화와 의미의미 변화국어 생활	89
유형문제 99	
05. 국어의 변천사와 훈민정음	102
유형문제 116	
06. 어문 규정(맞춤법, 표준어,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120
유형문제 146	

제2부 화법

화법 1. 교과서 배경지식

01. 화법의 본질	154
02. 화법의 원리	157
03. 화법의 실제	163

화법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사실적 파악	172
유형문제 189	
02. 화제, 주제 파악	196
유형문제 202	
03. 전제, 논거와 주장	206
유형문제 212	
04. 제시되지 않은 내용의 추론과 새로운 판단 이끌어내기	215
유형문제 226	
05. 말하기의 특성과 비판·평가	236
유형문제 257	

차례

제3부 작문

작문 1. 교과서 배경지식	270
작문 2. 유형별 원리와 사고방법	
01. 구상개요	274
유형문제 301	
02. 자료소재	313
유형문제 347	
03. 주제주제문	358
유형문제 370	
04. 요약	379
유형문제 383	
05. 머리말 쓰기	388
유형문제 391	
06. 본문 쓰기	395
유형문제 423	
07. 맺음말 쓰기	431
유형문제 440	
08. 단어의 선정	443
유형문제 470	
09. 문장 고치기	473
유형문제 491	
10. 문단 고치기	494
유형문제 510	

제4부 수능 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518
-----------------------------------	-----

이 책의 구성

• 이 책의 구성을 알면 학습 능률이 **쑈쑈쑈쑈쑈** 올라갑니다.

가. 제1, 2, 3부 문법/화법/작문

㉔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화법/작문/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 현재 학년도 기출 수능 문제를 신고 풀이하였으며 그 유형도 분석하여 학습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수능국어 **향** 출제 경향

수능국어 **향** 원리

수능국어 **향** 사고 방법

New Theory & Thinking Method 06 본문쓰기[예제]

5-2 머리말쓰기[유형문제]

1. 유형화된 문항의 의미를 설명하고 출제 경향을 제시했습니다. 가볍게 읽고 넘어 갑시다.
2. 문항과 관계된 최신 원리를 망라하여 제시함으로써 수능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에도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정독하기 바랍니다.
3. 문항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활용성이 뛰어난 사고 방법을 꼭 익혀둡시다.
4. [예제]
기출 수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유형 문제를 엄선하여 제시하고 수능국어 짱 원리로 풀이하였습니다.
5. [유형문제]
유형 테마 문항을 반드시 실어 원리와 사고 방법을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실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신경향·고난도 문항도 대폭 수록하였습니다.



● **문항 분석** 구상의 방향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향 원리로 정답 찾기** 주제와 관련시켜 볼 때 ㉔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조사의 내용 중 '자전거 등 에너지 절약 수단의 보급 현황'이라는 항목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내용이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 **오답 비루기** ㉠ 유류 대체 에너지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은 정부의 관련 부처나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 인력과 관련된 일이므로 적절하다. ㉢ 실태를 파악하고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논지 전개 방식이므로 적절하다. ㉣ 대체 에너지 개발 연구비 지원 증대라는 내용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 대체 에너지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나. 제4부 수능국어 짱 원리로 풀이한 정답 및 해설

모든 문항을 수능국어 짱 원리로 풀이하여 원리와 사고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하였으며 오답도 하나하나 풀이하였습니다.

제1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과 어문 규정



New Theory & Thinking Method

CE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화법·작문·문법 문제와 해설 및 유형 분석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탐구 과제는 ‘우리 문화재 깊이 보기’인데요, 저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우리나라 고분 벽화의 대다수는 고구려 돌방무덤에 있습니다. 돌방무덤은 돌을 쌓아 방처럼 만든 무덤으로 3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고분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가 돌방무덤의 내부입니다. 고분 벽화는 이곳의 천장과 벽에 그려져 있어요.

그럼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다양한 답변이 있네요. 3세기 중반부터 5세기 초에는 밥 먹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 등 무덤 주인의 일상생활을 주로 그렸습니다. (㉡자료 제시) 이것은 주인과 종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린 건데요, 이렇게 주가 되는 것을 크게, 나머지는 작게 그리는 방법을 ‘주대종소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분 벽화에서는 이 방법을 활용하여,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그의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5세기 중반부터 6세기 초의 고분 벽화에는 연꽃무늬가 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불교가 확산되는 시기로, 무덤 주인이 이상 세계에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연꽃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전반의 일부 고분에는 연꽃 위에 도교 사상과 관련된 신선을 그렸는데요, (㉢자료 제시) 이것은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대다수의 고분 벽화에는 도교의 영향으로 청룡, 백호 등과 같은 사신(四神)을 주로 그렸습니다. 사신이 무덤 주인을 수호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인식과 사회상을 담아낸 고분 벽화의 전통은 조선 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는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1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를 언급하여 발표 목적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④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돕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여러분은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럼 고구려 고분 벽화

에는 무엇을 그렸을까요?’ 등의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해 ‘(청중의 대답을 듣고),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등의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중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청중에게 기대하는 바와 관련된 표현은 없다. ③ 청중의 요청을 표현한 내용은 없다. ④ 발표 내용의 순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⑤ 발표 내용이 청중과 관련성이 높음을 제시한 내용은 없다.
- ✓ 애 답 ②

02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고구려 돌방무덤 내부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1]을 활용하였다.
- ② 무덤 주인의 권위를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③ 사후 세계에 대한 염원이 고분 벽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2]를 활용하였다.
- ④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을 고분 벽화에 담아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 ⑤ 종교 사상이 고분 벽화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자료3]은 신선과 연꽃이 있는 그림으로 신선은 도교, 연꽃은 불교와 관련되어 ‘불교와 도교 사상이 공존하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이지 무덤 주인을 지켜 준다고 여긴 대상을 그린 그림이 아니다.
- 오답 비루기 [자료 1]은 돌방무덤 내부의 벽과 천정에 벽화가 그려져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자료 2]는 주인을 종에 비해 크게 그려 무덤 주인의 권위를 강조하고, 주인의 모습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그려 풍요로운 삶이 사후 세계에서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 ✓ 애 답 ④

03 학생의 발표를 바탕으로 할 때, [A]에 들어갈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표 후 질의응답]

- 청 중 : [A]
- 발표자 :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①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고 하셨는데요, 무덤 내부에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② 고구려에 도교가 확산된 시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시기에 사신이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③ 고구려 고분 벽화에 주대종소법이 활용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당시에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④ 고구려 돌방무덤은 3세기에 출현했다고 하셨는데요, 이전 시기에서 볼 수 없었던 무덤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 ⑤ 고구려 고분 벽화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문화재가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를 지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답변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발표자의 답변은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인데 이는 고구려 이후에도 무덤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는 점과 벽화를 그려 넣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은 고구려 이후에도 무덤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는 점과 벽화를 그려 넣은 이유를 묻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①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의 전통이 후대까지 이어졌다’는 말은 고구려 이후에도 무덤에 벽화를 그려 넣었다는 점을 ‘무덤 내부에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라는 말은 벽화를 그려 넣은 이유를 묻는 내용이 된다.

● 오답 바꾸기 ②, ③, ④, ⑤ 모두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답변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될 수 없다.

✓ 해답 ①

[4~7] (가)는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중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활동 1] : 모둠 활동을 통해 비평문에서 다룰 현안과 관점 정하기

[활동 2] :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활동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가

학생 1 : 오늘은 내가 모둠장 할 차례니까 진행해 볼게.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 의견 나눠 볼까?

학생 2 : 그래,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민해 볼 만한 현안을 다루기로 했었지?

학생 3 : 맞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학생 2 : ㉡근데 그건 교지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학생 3 : 그러네. 그럼 어떤 걸로 하지?

학생 1 :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장소의 획일화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던. 그건 어때?

학생 2 :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줄래?

학생 1 : 응. 장소가 본모습을 잃고 다른 장소와 유사하게 변한 것을 말해.

학생 3 : 그렇구나.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 거리로 변해 버렸잖아.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이것도 장소의 획일화 아닐까?

학생 1 : 그래, 그제 장소 획일화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학생들도 경험했을 만한 내용이네. 장소의 획일화를 현안으로 다루 보자.

학생 3 : 좋아. 근데 장소의 획일화가 나쁜 점만 있을까? 인기 있는 명소를 따라 해서 획일화되더라도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

학생 1 : 물론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획일화된 장소는 금방 식상해져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익 역시 줄어들게 될 거고.

학생 2 :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으로 비평문 쓰기를 해 보자.

학생 3 : 응.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

학생 1 : 아무래도 장소의 다양성이 줄어들니까 가 볼 만한 장소가 줄어들겠지. 다른 문제점도 있을 텐데, 내가 자료 수집하면서 더 조사해 볼게. 다른 역할도 나눠 볼까?

학생 2 : 초고는 내가 써 볼게. 초고 다 쓰면 검토 부탁해.

학생 3 : 나도 자료를 찾는 대로 정리해서 공유할게.

나

제목 : 이곳저곳 같은 장소, 장소의 획일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즐겨 찾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개성 없는 ○○ 거리가 자리 잡았다. 추억이 담긴 골목길이 전국의 수많은 ○○ 거리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장소가 고유한 특성을 잃고 다른 장소와 동질화된 것이 장소의 획일화이다. 이러한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 장소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과는 구별되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지리학자 에드워드 쥘프는

‘나의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장소가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장소는 더 이상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도 줄어든다. 인기 있는 장소를 따라 하면, 장소 고유의 특성이 사라져 경험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교내 학술제에서 소개된 ‘우리 동네 보고서’를 보면,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일어난 변화가 최근 우리 동네 곳곳으로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장소가 획일화되어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데 장소의 획일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장소를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장소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소의 가치는 장소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 재래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살려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장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각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04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대가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확인하고 있다.
- ② ㉡ : 상대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③ ㉢ : 상대의 의견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④ ㉣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석 대화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라는 질문에는 상대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 오답 바꾸기 ① ㉠은 학생 1이 말한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을 구체화하여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민해 볼 만한 현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학생 3이 제시한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한 말이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2의 물음에 대해 학생 1이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1이 장소의 획일화의 사례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⑤

05 다음은 ‘학생 1’이 [활동 1]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 중 (가)의 ‘학생 1’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고른 것은?

- 모둠 활동 시작
 - [활동 1]과 관련해 지난 활동에서 논의된 사항 환기 ㉠
-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 선정
 - 교지에 실린 비평문을 참고 자료로 제시 ㉡
 - 매체에서 찾은 현안 제안 ㉢
- 현안에 대한 관점 선정
 - 관점을 선정할 때 유의할 점 안내 ㉣
- 모둠 활동 마무리
 - [활동 2]와 관련해 모둠원들의 역할 분담 제안 ㉤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학생 1의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 의견 나눠 볼까?’라는 말에 ㉡가 드러나고,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장소의 확일화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거든. 그건 어때?’라는 말에 ㉣가 드러나 며, ‘내가 자료 수집하면서 더 조사해 볼게. 다른 역할도 나눠 볼까?’라는 말에 ㉤가 드러난다.

● **오답 비루기** ㉠와 ㉢에 대한 발언은 없다.

✓ **해답** ②

06 '학생 2'가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제목

[활동 1]에서 선정한 현안이 드러나게 제목을 구성해야겠군. ①

• 1문단

[활동 1]에서 예상 독자도 접했을 만하다고 논의된 경험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해야겠군. ②

• 2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야겠군. ③

• 3문단

[활동 1]에서 언급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장소의 획일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추가 자료를 활용해야겠군. ④

• 4문단

[활동 1]에서 제기되었던 의견을 반영하여 서술해야겠군.

• 5문단

[활동 1]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례를 추가하여 장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부각해야겠군. 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핵심 원리로 정답 찾기 2문단에서 인용된 전문가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의 견해는 '장소의 획일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현안에 대해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 현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① [활동 1]에서 선정한 현안인 장소의 획일화가 제목에 들어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교내 학술제에서 소개된 '우리 동네 보고서'를 보면,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일어난 변화가 최근 우리 동네 곳곳으로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 재래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살려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장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각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07 다음은 선생님의 모둠 활동 안내이다. 이에 따라 (나)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 : 오늘은 모둠에서 작성한 비평문의 초고를 평가해 볼게요. 다음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각 모둠별로 평가해 봅시다.

- ㉠ 현안에 대한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 ㉡ 현안에 대한 관점이 일관되는가?
- ㉢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 필자가 선택하지 않은 관점을 비판할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 ① ㉠을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 ② ㉡을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관점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 ③ ㉢을 고려할 때,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 ④ ㉢을 고려할 때, 장소가 획일화되면 인간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이 훼손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 ⑤ ㉣을 고려할 때, 장소의 획일화를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였는가?’라는 기준으로 볼 때 지리학자 에드워드 켈프의 견해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획일화된 장소에 식상함을 느낀 사람들이 장소의 선택권을 요구했다는 점은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 **오답 비루기** ① ‘이러한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②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서술하고 있어 적절하다. ④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장소는 더 이상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장소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해답** ③

[8~10] (가)는 작문 과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 작문 목적 : ‘게임화’에 대한 정보 전달
- 주제 :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게임화’의 특징
- 예상 독자 : ‘게임화’가 생소한 우리 학급 학생

나) 학생의 초고

‘게임화(gamification)’란 게임적 사고나 게임 기법과 같은 요소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때 게임이란 컴퓨터 게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게임화는 먼저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하여 이에 도전하게 만든다. 이후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참여자들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얼마 전 한국사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를 배경으로 윗놀이 판을 만들어 모둠별 퀴즈 대결을 펼친 것도 게임화에 해당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퀴즈를 맞히면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며 전국을 순회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수업에 더욱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는 게임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한편 게임화는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기업의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달리기를 하면 달린 거리와 소모 칼로리 등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과제를 통해 참여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일리지를 올려주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차등 부여하는 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게임화는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게임화를 활용하느냐이다. 게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흥미, 도전, 경쟁, 보상과 같은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08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다.
- ② 제재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제재가 가지는 효용적 측면을 부각한다.
- ③ 제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사례를 제시한다.
- ④ 제재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를 정의한다.
- ⑤ 제재와 관련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상 독자와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활용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글쓰기에서 활용하지 않은 전략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개념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 내용은 없다.

● **오답 비루기**

② ‘게이미화는 먼저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하여 이에 도전하게 만든다. 이후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참여자들이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③ ‘달리기를 하면 달린 거리와 소모 칼로리 등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과제를 통해 참여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일리지를 올려 주고, 누적된 마일리지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차등 부여하는 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④ ‘게이미화(gamification)란 게임적 사고나 게임 기법과 같은 요소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⑤ ‘얼마 전 한국사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 지도를 배경으로 옷놀이 판을 만들어 모둠별 퀴즈 대결을 펼친 것도 게이미화에 해당한다.’라는 구절로 보아 적절하다.

✓ **매 답** ①

09 <보기>는 (나)의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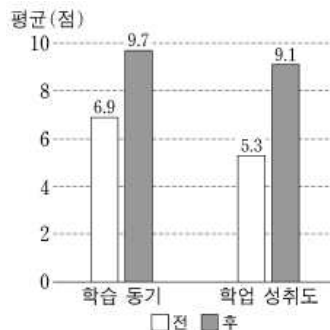
가상의 나무 심기가 실제 나무 심기로 이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가상의 나무를 심으며 얻는 성취감과 함께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가상의 나무 심기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ㄴ. 전문가 인터뷰

“게이미화된 과제에서는 참여자가 무언가를 하거나 선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됩니다. 이때 피드백의 한 유형인 보상 또한 신속하게 주어집니다. 참여자는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바탕으로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ㄷ. 연구 자료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사회 수업에 게이미화를 적용한 학급과 적용하지 않은 학급으로 나누어 수업 전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게이미화를 적용한 학급은 적용하지 않은 학급과 달리, 도표와 같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 ① ㄱ을 활용하여, 게이미화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나)의 내용에 게이미화가 환경 분야에서도 활용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게이미화의 특징을 다루고 있는 (나)의 내용에 참여자에게 피드백이 빠르게 제공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게임화를 학습 상황에 적용한 (나)의 내용에 게임화가 학습 참여자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보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높인다는 (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 ⑤ ㄴ과 ㄷ을 활용하여, 게임화가 참여자의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나)의 내용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는 점을 제시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짝 원리로 정답 찾기 ㄱ의 의미 요소는 가상의 나무 심기 즉 게임화가 실제 나무 심기 즉 환경 보호로 이어진다는 것,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몰입하게 만든다는 것 등이다. ㄴ의 의미 요소는 피드백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점, 참여자가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바탕으로 과제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ㄷ의 의미 요소는 학습 참여자 학습 동기와 학습 성취도를 높인다는 점이다. 이로 보아 ㄴ과 ㄷ의 자료에 학습 동기가 높을수록 과제 선택에 따른 성취감이 커진다는 의미 요소는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짝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ㄱ의 의미 요소에 적절한 내용이다. ② 짝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ㄴ의 의미 요소에 적절한 내용이다. ③ 짝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ㄷ의 의미 요소에 적절한 내용이다. ④ 짝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ㄱ의 의미 요소와 ㄴ의 의미 요소가 합쳐진 내용이어서 적절하다.

✓ 해답 ⑤

10 다음은 (나)의 ‘학생’이 ‘초고’를 고쳐 쓰는 과정에서 수행한 학습 활동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 일상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이 쓴 글을 고쳐 써 보자.
- (1) 자신이 쓴 글과 관련한 경험을 떠올려 보자.

지난 한국사 시간에 모둠별로 퀴즈 대결을 하는 과제에 참여했다. 다른 모둠을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과제에 임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같은 모둠의 친구를 다그치며 싫은 소리를 해 버렸다. 집에 와서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아 다음 날 그 친구를 찾아가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 (2) (1)에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쳐 쓸 내용을 생각해 보자.

이번 일로 게임화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마지막 문단에서 [A] 내용을 제시하여 게임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겠다.

- ① 게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에만 연연할 경우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 ② 게임화를 통해 단순히 흥미만 추구할 경우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 ③ 게임화된 과제에 도전하려는 의욕이 없는 경우 다른 참여자들의 과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 ④ 게임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과제에 대한 몰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 ⑤ 게임화의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자료의 의미 요소를 활용하여 추가할 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학습 활동 (1)의 의미 요소는 게임화의 몰입하여 경쟁하다가 참여자인 친구에게 잘못을 하여 사과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는 게임화의 경쟁적 속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 (1)의 의미 요소와 무관하다.

✓ **해답** 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단어의 의미와 유래를 통해 단어에 담긴 언중의 인식과 더불어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 구성 방식도 이해할 수 있다.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에는 ‘원어기(遠語機)’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telephone’에 해당하는 단어로 ‘말을 멀리 보내는 기계’라는 뜻이다. 오늘날의 ‘전화기(電話機)’가 ‘전기를 통해 말을 보내는 기계’의 뜻이라는 점과 비교해 보면 ‘원어기’는 말을 ‘멀리’ 보낸다는 점에, ‘전화기’는 말을 ‘전기로’ 보낸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단어이다. 이처럼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개화기 사전에 등장하는 ‘소젓메주(소젓매주)’처럼 새롭게 유입된 대상을 일상의 단어로 표현한 경우도 있다. ‘소젓매주’는 ‘치즈(cheese)’에 대응하는 단어인데, 간장과 된장의 재료인 ‘메주’라는 일상의 단어를 통해 대상을 인식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가례언해』(1632)에 따르면 ‘총각(總角)’은 ‘머리를 땡아 갈라서 틀어 땡’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를 뜻한다. 특정한 행위를 나타내던 단어가 이와 관련된 사람을 지시하는 말로 그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자도 머리를 땡아 묶었던 과거의 관습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대찌개’ 역시 한국 전쟁 이후 미군 부대에서 나온 재료로 찌개를 끓였던 것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다.

우리는 단어의 구조를 통해 단어가 구성되는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 『한불자전』(1880)에는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두길보기’와 ‘산돌이’가 등장한다. “양쪽 모두의 눈치를 보는 사람”으로 풀이된 ‘두길보기’의 ‘두길’은 ㉠관형사가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장소를 일 년에 한 번만 지나가는 큰 호랑이”로 풀이된 ‘산돌이’는 ㉡단어의 구성 요소들이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이루어져 ‘산을 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예전에도 오늘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단어를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었던 셈이다.

11 ㉠과 ㉡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새해맞이,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① 새해맞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②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한몫하다
- ③ 두말없이, 숨은그림찾기
- ④ 새해맞이, 한몫하다
- ⑤ 새해맞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하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핵심 원리로 정답 찾기 제시된 두 원리에 부합해야 하는데 ‘새해맞이’는 [새(관형사)+해(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맞(동사의 어간)+이(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분석되고 ‘한몫하다’는 [한(관형사)+몫(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하(동사 어간)+다(동사 어미)](의미상 서술어)의 형태로 분석되므로 ㉠, ㉡의 두 원리에 부합하다.

● 오답 바꾸기 ‘두말없이’는 [두(관형사)+말(후행하는 명사)](의미상 주어)+[없(형용사 어간)+이(부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숨은그림찾기’는 [숨(동사의 어간)+은(관형사형 전성 어미)](관형어)+[그림(후행하는 명사)](의미상 목적어)+[찾(동사 어간)+기(명사 파생 접미사)](의미상 서술어)로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다.

✓ 해답 ④

12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립스틱’을 여성들이 입술에 바르던 염료인 ‘연지’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술 연지’라고도 했다.
- ‘변사’는 무성 영화를 상영할 때 장면에 맞추어 그 내용을 설명하던 직업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
- ‘핵대’의 순화어로 ‘가족으로 만든 띠’라는 뜻의 ‘가족띠’와 ‘허리에 매는 띠’라는 뜻의 ‘허리띠’가 제시되어 있다.
- ‘양반’은 조선시대 사대부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점잖은 사람’의 뜻으로 주로 쓰인다.

- ① ‘입술연지’는 ‘소젓메쥬’처럼 일상의 단어로 새로운 대상을 인식한 예로 볼 수 있겠군.
- ② ‘변사’는 무성 영화와 관련해 쓰인 단어라는 점에서 시대상이 반영된 예에 해당하겠군.
- ③ ‘수세미’는 기존의 의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총각’과 유사하겠군.
- ④ ‘가족띠’는 ‘재료’에,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에 초점을 둔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 ⑤ ‘양반’은 신분의 구분이 있었던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의 흔적을 담고 있겠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어휘에 들어있는 의미나 의미 변화의 차이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수세미는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을 뜻하는데, 그 열매 속 섬유로 그릇을 닦았다. 오늘날 공장에서 만든 설거지 도구도 ‘수세미’라고 한다.”라는 표현으로 보면 ‘수세미’는 의미 영역이 확장되어 새로운 설거지 도구를 포함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각(總角)’은 ‘머리를 땡아 갈라서 틀어 땸’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그러한 의미는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은 청년 남자’를 뜻한다고 하였으므로 의미 영역이 확장된 것이 아니라 의미 이동이 일어난 말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입술연지’는 일상의 입술과 연지로 립스틱이라는 새로운 대상을 표현한 말이다. ② 변사라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쓰이다가 쓰이지 않게 단어여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④ ‘핵대’는 ‘가족띠’라는 의미의 한자어인데 ‘가족띠’는 ‘재료’를, ‘허리띠’는 ‘착용하는 위치’를 중시하여 만든 단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⑤ ‘양반’은 신분을 드러내는 단어였으나 현재는 신분과 관련 없는 말이 되었으므로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 **해답** ③

- 13 ㉠~㉡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물 떡볶이’ 만드는 법

- 떡을 물에 ㉠ 담가 둔다.
- 멸치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체에 ㉡ 걸러서 육수를 준비한다.
- 육수에 고추장, ㉢ 같은 마늘, 불린 떡, 어묵을 넣는다.
- ㉣ 하였던 떡이 빨갛게 될 때까지 잘 ㉤ 저어 익힌다.

- ① ㉠ : 예쁘- + -어도 → 예뻐도
 ② ㉡ : 푸르- + -어 → 푸르러
 ③ ㉢ : 살- + -니 → 사니
 ④ ㉣ : 동그랑- + -아 → 동그래
 ⑤ ㉤ : 굿- + -은 → 그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석 용언의 활용이 동일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방 원리로 정답 찾기 ‘거르+어서’가 ‘걸러서’가 되는 변화는 ‘ㄴ’ 탈락과 ㄹ이 첨가되는 ‘르 불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푸르- + -어 → 푸르러’ 형태의 변화는 ‘-어’가 ‘러’로 바뀐 것으로 ‘러 불규칙’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은 ‘ㄴ’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이고 ‘예뻐도’도 ‘ㄴ’ 탈락이 일어난다. ③ ㉢은 ‘ㄹ’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이고 ‘사니’도 ‘ㄹ’ 탈락이 일어난다. ④ ㉣은 어간말음 ‘ㅎ’이 ‘ㄴ, ㄹ, ㅁ, ㅂ, 시’의 자음 앞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ㅎ 불규칙’에 해당하고 ‘동그래’도 ‘ㅎ 불규칙’에 해당한다. ⑤ ㉤은 ‘ㅅ’ 탈락이 일어나는 단어이고 ‘그은’도 ‘ㅅ’ 탈락이 일어난다.

✓ 해답 ②

1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겹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안긴문장으로 쓰일 수 있다. 또한 겹문장은 안은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도 쓰인다. 다음 밑줄 친 겹문장 ㉠~㉥의 쓰임을 설명해 보자.

- 기상청은 ㉠내일은 따뜻하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를 했다.
- 시민들은 ㉢공원이 많고 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다.
- ㉡바람이 거세지고 어둠이 내리기 전에 산에서 내려갔다.
- 나는 나중에야 ㉣그녀는 왔으나 그가 안 왔음을 깨달았다.
- 삼촌은 주말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들판을 거닐었다.

- ① ㉠은 인용절로 쓰이고 있다.
- ② ㉢은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③ ㉡은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 ④ ㉣은 조사와 결합하여 주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 ⑤ ㉤은 조사와 결합 없이 부속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겹문장의 쓰임에 대한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리로 정답 찾기 ㉠은 '예보'를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절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② ㉢은 '도시'를 꾸미고 있으므로 관형절에 해당한다. ③ ㉡은 '기'라는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되어 명사절이 된다. ④ ㉣은 조사 '을'을 결합하여 주성분인 목적어 쓰이고 있다. ⑤ ㉤은 '는'이라는 어미와 결합하여 부속 성분인 관형절로 쓰이고 있다.

✓ 해답 ①

15 <보기>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 생 : 현대 국어와는 달리 중세 국어의 ‘㉠’, ‘㉡’가 이중 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해요.

선생님 : ‘㉠’, ‘㉡’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 (가)를 참고하여 (나)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단다.

가)

체언의 끝소리	조사의 형태	예
자음	이라	지비라[집이다]
단모음 ‘이’나 반모음 ‘ㅣ’	∅라	스시라[스시(사이)이다] 불휘라[불휘(뿌리)이다]
그 밖의 모음	ㅣ라	전치라[전치(까닭)이다] 곡되라[곡도(꼭두각시)이다]

나)

금(금)은 이제라[이제이다], 하(하)는 아래라[아래이다]

학 생 : (가)의 ㉠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 ‘㉡’가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

- ① 지비라
- ② 스시라
- ③ 불휘라
- ④ 전치라
- ⑤ 곡되라

㉡

- 이라
- ∅라
- ∅라
- ㅣ라
- ㅣ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 석

중세 국어의 ‘㉠’, ‘㉡’가 이중 모음이었다는 근거가 되는 표기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 원 리로 답 정

(가)에서 ‘불휘라’에서 ‘㉠’은 반모음 ‘ㅣ’ 아래에서 조사 ‘∅라’가 결합된 형태로 ‘㉠’이 이중 모음임을 보여준다. (나)에서 ‘이제라’와 ‘아래라’는 ‘이제’와 ‘아래’에 조사 ‘∅라’가 결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중세 국어의 ‘㉠’, ‘㉡’가 반모음 ‘ㅣ’가 들어있음을 입증한다. 따라서 이들이 이중 모음임을 입증하는 표기가 된다.

● 오답 배루기

① ‘지비라’는 자음 아래에 ‘이라’가 결합된 형태로 이중 모음 ‘㉠’, ‘㉡’와 무관하다. ② ‘스시라’ ‘ㅣ’ 모음 아래에 ‘∅라’가 결합된 형태로 이중 모음 ‘㉠’, ‘㉡’와 무관하다. ④ ‘전치라’는 ‘ㅣ’ 이외의 모음 아래에 ‘ㅣ라’가 결합된 형태로 이중 모음 ‘㉠’, ‘㉡’와 무관하다. ⑤ ‘곡되라’는 ‘ㅣ’ 이외의 모음 아래에 ‘ㅣ라’가 결합된 형태로 이중 모음 ‘㉠’, ‘㉡’와 무관하다.

✓ 해답 ㉢



1. 언어의 본질과 특성 및 문법의 4대 영역

① 언어의 본질

(1) 언어와 인간

언어는 인간의 삶 즉 사고, 사회·문화와의 상호 작용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2) 언어와 사고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세 가지 주장

- ①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②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 ③ 언어와 사고가 상호 작용한다는 주장

(3) 언어와 사회

- ① 언어는 친교적 기능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줌.
- ② 언어는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됨.
- ③ 언어는 지역 사회나 언어를 사용하는 신분, 세대, 성별에 따라 다양성을 띤다.

(4) 언어와 문화

- ① 언어는 자체가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반영하고 있음.
- ② 언어는 문화의 계승과 창조적 발전의 핵심이 됨.



개념어·어휘·크리닉

•언어의 친교적 기능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언어의 기능.

② 언어의 특성

(1) 기호성

언어를 음성이나 문자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언어의 기호성이라 함.

해설

‘나무’라는 언어는 ‘나무’ 자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나무’ 자체를 대신 나타내는 기호이다.

(2) 자의성

언어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임의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 함.

해설

실제의 ‘나무’를 우리 언어로는 ‘나무’라고 표기하지만 다른 언어로는 木이라 하기도 하고 tree[tri:]라 하기도 한다. 이는 언어와 실제 나타내는 사물의 관계가 특정 언어의 언중이 제 마음대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3) 사회성

언어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불역성(不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특정 개인이 ‘너무’라고 쓴다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게 된다. 이처럼 언어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4) 역사성

언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말소리 나 표기, 의미 등이 바뀌는 가역성(可易性)을 지니는데 이를 언어의 역사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중세 국어에서는 ‘나모’와, ‘남기’ 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나무’로 쓰고 있다. 언어는 개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사회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처럼 세월이 흐르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분절성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대상을 끊어서, 즉 분절하여 표현하는 데 이를 언어의 분절성이라 함.

해설

‘나무’를 우리는 흔히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으로 나눠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줄기’와 ‘가지’가 어디부터 나누어지는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언어로는 분명히 나누어서 표현한다.

(6) 규칙성

언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 등의 문법 단위에 적용되는 규칙을 지니게 되는데 이를 언어의 규칙성이라 함.

해설

사실적 표현으로 ‘나무가 썬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썬다’라는 서술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대상만 서술할 수 있다는 규칙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7) 추상성

언어의 의미는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데 이를 언어의 추상성이라 함.

해설

‘나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나무’의 속성을 생각해내야 한다. 사전에서는 ‘줄기나 가지가 목질로 된 여러해살이 식물.’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나무’가 ‘① 줄기와 가지가 목질로 되어 있다. ② 여러해살이이다. ③ 식물이다.’ 등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을 추상화하여 ‘나무’라 일컫는다는 것이다.

(8) 창조성

언어는 새로운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언어의 창조성이라 함.

해설

‘나무가 있다’란 표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나무가 있다’란 표현도 할 수 있으며 ‘나무는 자라서 재목이 되고 재목은 우리의 집을 만들어주며……’ 등의 창조적 표현도 가능하다.

③ 문법의 4대 영역

- (1) 음운론 : 음운이나 음운의 배합에 의한 음절의 구조를 연구
- (2) 형태론(품사론) : 단어 및 단어의 구조를 연구
- (3) 통사론(문장론, 구문론) : 문장 구조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연구
- (4) 담화론 : 문장의 연속체에서 다른 문장에 의해 만들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구



*형태론은 품사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통사론은 구문론, 문장론이라 일컫기도 한다.

예문 문법 분야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	연구 분야	비고
음운론적 분석	ㄱ+ㄴ, ㄱ+ㅏ ㄱ : 예사소리 파열음 ㄴ : 평순 모음 고모음 후 설 모음 ㅏ : 평순 모음 저모음 후 설 모음	어 ……	지음동화	음운, 음운의 변동	
형태론적 분석	대명사+주격 조사	명사+목적격 조사 합성어	동사 읽 + 는 + 다 어간 +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 평서형 종결 어미	형태소, 단어 의 종류 및 형 성, 품사	
통사론적 분석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 문 장의 구조, 담 화	흐름장
담화론적 분석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다른 문장과는 관계나 맥락 등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뉴스나 읽던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라는 문장에서 ‘그가 이야기책을 읽는다.’란 문장은 사실적 의미 외에 발화자의 경이로움이나 새로움 등의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다.				

2. 음운론

① 음운의 개념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곰’과 ‘놈’의 두 글자에서 뜻이 달라진 이유는 ㄱ과 ㄴ의 대치에 있다. 따라서 ㄱ과 ㄴ은 뜻을 구별하여 주는 음운에 해당한다. ‘논’과 ‘눈’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ㄴ과 ㄷ가 음운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모든 자음과 모음은 음운에 해당한다.

(1) 분절 음운[음소]

① 자음

조음 위치 조음 방법			두 입술	윗잇몸, 혀끝	센입천장, 잇몸	여린입천장, 혀 뒤	목청 사이
안울림소리	파열음	예사소리	ㅂ	ㄷ		ㄱ	
		된소리	ㅃ	ㄸ		ㄲ	
		거센소리	ㅍ	ㅌ		ㅋ	
	파찰음	예사소리			ㅈ		
		된소리			ㅉ		
		거센소리			ㅊ		
	마찰음	예사소리		ㅅ			ㅎ
		된소리		ㅆ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② 모음

혀의 앞뒤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ㅊ	ㅡ	ㅜ
중모음	ㅔ	ㅝ	ㅑ	ㅛ
저모음	ㅐ		ㅓ	

(2) 비분절 음운[운소] : 소리의 길이, 억양

예) 소리의 길이 - 눈[雪], 눈[眼] / 말[言], 말[馬, 斗]

예) 억양 - 잠 자. [잠 자] : 긍정. [잠 자] : 의문. [잠 자] : 명령.

② 음운의 변동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변동 유형	명칭	개념	사례
교체 (대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밖 → [박] 앞 → [압]
	자음 동화	비음화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국물 → [궁물] 밥물 → [밤물]
		유음화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난로 → [날로] 칼날 → [칼랄]
	구개음화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셀입 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미달이 → [미다지] 피붙이 → [피부치]
	된소리되기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잡+고 → [잡꼬] 젓+소 → [젓쏘] 신+고 → [신꼬]
탈락	자음 탈락	‘ㄴ, ㄷ, ㅅ, ㅈ’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현상이나 모음 앞에서 ‘ㅎ’이 소리 나지 않는 현상	울+시고 → [우시고] 쌀+이다 → [싸이다]
	모음 탈락	두 개의 모음이 이어질 때 ‘ㅏ’, ‘ㅑ’, ‘ㅓ’가 탈락하는 현상	가+아서 → [가서] 깨+어 → [깨] 살+으면 → [살면]
첨가	사잇소리 현상	- 두 단어가 합성어를 이룰 때 뒷단어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거나 ‘ㄴ’ 혹은 ‘ㄴ, ㄴ’이 덧나는 현상 - 복합어이면서 앞 단어나 접두사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 ㄴ이 첨가되는 현상 ※ 한자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사이시옷 표기 공간, 셋방, 숫자, 찻간, 텃간, 횃수	바다+가 → [바달까] 비+물 → [빈물] 뒤+일 → [뒤닐] 신여성 → [신녀성] 한여름 → [한녀름] 숨이불 → [숨니불]
축약	거센소리 되기	‘ㅂ,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ㅍ, ㅌ, ㅊ, ㅋ’이 되는 현상	졸다 → [조타] 입히다 → [이피다] 젓히다 → [저치다]
	음절 축약	‘ㅣ’와 ‘ㅣ’가 만나서 ‘ㅿ’로 바뀌거나 ‘ㅓ, ㅕ’가 ‘ㅏ, ㅑ’ 앞에서 ‘ㅓ, ㅕ’로 바뀌는 현상	맞추+어 → [맞춰] 오+아서 → [와서] 그리+어 → [그려]



01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음절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면 '① 모음, ② 자음+모음, ③ 모음+자음, ④ 자음+모음+자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꽃[꼇]'은 ④, '잎[읻]'은 ③에 속하지요. 그런데 복합어 '꽃잎'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 [꼇닙]으로 발음돼요. 이때 [닙]은 ④에 해당되며 음운의 첨가로 음절 유형이 바뀐 것이지요.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밥상(밥+상), 집일(집+일), 의복함(의복+함),
국물(국+물), 화살(활+살)

학생 : [A]

선생님 : 네, 맞아요.

- ① '밥상[밥쌩]'에서의 [쌩]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달라졌어요.
-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일[일]'과 달라졌어요.
- ③ '의복함[의보캄]'에서의 [캄]은 축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함[함]'과 달라졌어요.
- ④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국[국]'과 같아요.
- ⑤ '화살[화샬]'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활]'과 같아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국물[궁물]'에서의 [궁]은 받침 'ㄱ'을 'ㅇ'으로 교체한 것이고, '국[국]'과 [궁]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 오답 비루기 ① '밥상[밥쌩]'에서의 [쌩]은 교체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상[상]'과 같다. ② '집일[집닐]'에서의 [닐]은 첨가의 결과이고, 음절 유형은 단일어 ③ 형인 '일[일]'과 다르게 ④ 형으로 바뀌었다. ③ '함[함]'과 [캄]의 음절 유형은 ④ 형으로 서로 같다. ⑤ 음절 유형이 [화]는 ② 형이고 '활[활]'은 ④ 형으로 서로 다르다.

✓ 애답 ④

02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 최소 대립쌍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해요. 가령 최소 대립쌍 ‘살’과 ‘쌀’은 ‘ㅅ’과 ‘ㅆ’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때의 ‘ㅅ’, ‘ㅆ’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되죠. 이처럼 최소 대립쌍을 이용해 음운들을 추출하면 음운 체계를 수립할 수 있어요.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쌍들을 찾아 음운들을 추출하고, 그 음운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A] 쉬리, 마루, 구실, 모래, 소리, 구슬, 머루

[B]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혀의 높낮이	입술	전설 모음		후설 모음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ㄱ	ㅡ	ㅗ
	중모음	ㅔ	ㅟ	ㅓ	ㅜ
	저모음	ㅐ		ㅑ	

[학생의 탐구 내용]

추출된 음운들 중 ㉠ 을 확인할 수 있군.

- ① 2개의 전설 모음
- ② 2개의 중모음
- ③ 3개의 평순 모음
- ④ 3개의 고모음
- ⑤ 4개의 후설 모음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모음의 체계를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A]에 제시된 어휘를 최소 대립쌍으로 짝지어 보면 ‘쉬리/소리’에서 ‘ㄱ/ㅇ’, ‘마루/머루’에서 ‘ㅏ/ㅑ’, ‘구실/구슬’에서 ‘ㅣ/ㅓ’이고 ‘모래’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는 없다. 최소 대립쌍인 ‘ㄱ/ㅇ’, ‘ㅏ/ㅑ’, ‘ㅣ/ㅓ’를 [B] 국어의 단모음 체계에 적용해 보면 ‘ㅏ/ㅑ/ㅣ’의 세 개의 평순 모음을 찾을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④, ⑤ 모두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풀이한 내용에 어긋난다.

✓ **매 답** ③

03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흙일 → [흥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석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 '닳는'은 'ㄹ'이 'ㄷ'로 교체되어 '달는'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달른'이 된다. 따라서 첨가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바꾸기 ㉠ '흙일'은 'ㄹ'이 'ㄱ'으로 교체되고 'ㄴ'이 첨가되어 '흥닐'이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흥날'이 된다. 이 때 '흙일'의 음운의 수는 '흙'이 '흙으로' 쓰일 때 'ㄱ'과 'ㄱ'이 각각 발음되므로 6이고 '흥날'의 음운의 수도 6이다. ㉢ '발야구'는 'ㄴ'이 첨가되어 '발랴구'가 되었다가 이것이 자음 동화를 일으켜 '발랴구'가 된다.

✓ 해답 ②

04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
[가]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
 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
[나]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몹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얹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옹고 [읍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칙에 알맞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옳고'의 음운 변동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옳고 → 옳고 → 옳고 → 옳꼬'의 형태가 된다. 즉 겹받침 'ㄹ'에서 'ㄹ'이 탈락되고(나) 'ㄹ'은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어 'ㄴ'이 된다.(가) 'ㄴ'과 'ㄱ'이 만나 된소리 되기가 일어나면 'ㄱ'은 'ㄲ'으로 교체된다.

● **오답 비루기** ① 축약에 해당한다. ② 연음법칙과 된소리되기 즉 교체에 해당된다. ③ 파열음의 예사소리로의 교체에 해당한다.(가) ④ 축약에 해당한다.

✓ **해답** ⑤

05 다음의 ㉔에 해당하는 것을 ㉑~㉓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㉔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㉑ 기+{어 → [기여]
- ㉒ 살피+{어 → [살피]
- ㉓ 배우+{어 → [배워]
- ㉔ 나서+{어 → [나서]

① ㉑, ㉒

② ㉑, ㉓

③ ㉒, ㉓

④ ㉒, ㉔

⑤ ㉓, ㉔

● **문항 분석**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 모음이 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찾기** ㉒ '살피+{어 → [살피]'의 경우는 단모음 'ㅣ'와 'ㅣ'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ㅍ'가 된 예이고, ㉓ '배우+{어 → [배워]'의 경우는 단모음 'ㅜ'와 'ㅜ'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ㅑ'가 된 예이다.

● **오답 비루기** ㉑ '기+{어 → [기여]'의 경우는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된 예이다. 즉 단모음 'ㅣ'와 'ㅣ' 사이에 반모음 [j]가 들어가 'ㅣ'가 'ㅟ'로 발음되는 예이다. '기+{어 → [겨]'라고 써야 ㉔의 예가 된다. ㉔ '나서+{어 → [나서]'는 단모음 'ㅣ'가 탈락하는 예이다.

✓ **해답** ③

06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빈], 앞 → [압], 안팎 → [안팍]
 ㉡ 약밥 → [약뻘], 잡다 → [잡따]
 ㉢ 놓지 → [노치], 만형 → [마텅]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 변동과 관련된 올바른 설명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바꾸는 변동이고, ㉢은 축약인데 ‘뜻’이 ‘뜯’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하고 ‘뜯’의 ‘ㄷ’이 ‘ㅎ’을 만나 ‘트’으로 바뀌는 것이 ㉢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은 음절 초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음운 변동이다. ② ㉠은 대표음이 아닌 것을 대표음으로, ㉢은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④ 둘 다 동화가 아니다. ⑤ ㉡은 된소리되기이다.

✓ 해답 ③

07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펄펄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음운의 구실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장 원리로 정답 찾기** (ㄱ)에서 초성, 중성, 종성 등이 바뀔에 따라 뜻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ㄴ)에서 음의 장단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에서 초성, 중성, 종성, 음의 장단 등은 음운이며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배리기** ① 음의 장단은 문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③ (ㄱ)에서는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 (ㄴ)에서는 관습적으로 발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에서 바뀐 것이 아니다. ④ (ㄴ)에서는 뜻의 차이에 따라 음의 장단을 달리하는 것이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음운의 차이에 따라 뜻이 바뀐 것이지 감정과는 무관하다.

✓ **해답** ②

08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 채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이형태 관계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밝히고 있는 이형태는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와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녔으며 형태만 다른 것을 의미한다. ①의 광주에 왔다는 광주로 왔다는 의미이고 광주에서 왔다는 광주로부터 왔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들의 이형태 관계가 아니다.

● **오답 바꾸기** ② 둘 다 도구를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③ 둘 다 마음에 차지 않는 선택, 또는 최소한 허용되어야 할 선택이라는 뜻을 나타내며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④ 둘 다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자음과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⑤ 둘 다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아래에 나타나는 이형태이다.

✓ **해답** ①

01 <보기>에서 제시하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동물의 언어는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로 '회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은 '화이트(white)'라고 하기도 하고 '블랑(blanc)'이라고도 한다.

- | | |
|-------|-------|
| ① 역사성 | ② 사회성 |
| ③ 자의성 | ④ 분절성 |
| ⑤ 규칙성 | |

02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가)와 관련된 언어의 속성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 언어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언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은 언어가 존재하는 사회와 문화가 계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 생겨난 언어는 모습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언어와 결합하여 다시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존재했던 사회나 사물, 현상 등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지칭하던 언어도 함께 사라지게 된다.

(나) '맥도날드 할머니' 권△△ 씨가 돌봐줄 가족 없이 석 달 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인터넷 포털에는 '김치녀의 최후'라며 고인을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내용은 거처도 없는 권 씨가 허영심 때문에 매일 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영자신문을 읽으며 과거의 '우아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격을 비하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 2000년대 '된장녀'가 대세였다면 지금은 '김치녀'로 변화했다. 된장녀는 웬만한 한 끼 밥값에 해당하는 브랜드 커피를 즐겨 마시며 해외 명품 소비를 선호하는 젊은 여성을 비하해 일컫는 말이다. 한국의 전통 음식 김치에 빗댄 김치녀라는 말은 본래 '명품을 밝히고 소비 활동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의미로 쓰이다가 점차 한국 여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로 확대되고 있다.

- | | |
|-------|-------|
| ① 사회성 | ② 추상성 |
| ③ 자의성 | ④ 규칙성 |
| ⑤ 창조성 | |

03 다음 중 <보기>에서 제시한 자음과 모음을 다 활용하여 발음할 수 있는 단어는?

| 보 기 |

자음 : ㉠ 파찰음 예사소리 ㉡ 파열음 거센소리
모음 : ㉢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 ㉣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

- ① 싫다
- ② 좋다
- ③ 않다
- ④ 잣다
- ⑤ 젓다

04 <보기>를 읽고 서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음운의 변동이란 어떤 음운이 그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① '잡지'를 [잡찌]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② '부엌'을 [부억]으로 발음하는 것은 교체의 예이다.
- ③ '달아'를 [다라]으로 발음하는 것은 탈락의 예이다.
- ④ '학문'을 [항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첨가의 예이다.
- ⑤ '쌍고'를 [싸꼬]로 발음하는 것은 축약의 예이다.

05 '내복약'과 '나뭇잎'의 발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복약 ⇨ [내복낙] ⇨ [내봉낙]

 ㉠ ㉡

나뭇잎 ⇨ [나뭇입] ⇨ [나뭇닙] ⇨ [나뭇닙]

 ㉢ ㉣ ㉤

- ① '콩엿'을 발음할 때에는 ㉠과 같은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과 ㉣에서는 같은 음운인 'ㄴ'이 첨가되었다.
- ③ ㉡와 유사한 음운 변동의 예로는 '먹는'이 있다.
- ④ ㉡와 ㉤에서는 음운의 동화가 일어난다.
- ⑤ ㉢에서는 대표음으로 바뀌는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06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ㄱ~ㅁ 중 ‘축약’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1|

‘축약’은 두 음운이 만날 때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을 말한다. 축약에는 ‘ㄴ, ㄷ, ㅈ, ㄱ’과 ‘ㅎ’이 만나 ‘ㄲ, ㅌ, ㅊ, ㅋ’이 되는 자음의 축약과 ‘그리어’가 ‘그려’로, ‘보아서’가 ‘봐서’로 되는 것처럼 두 모음이 축약되어 한 음절로 되는 모음의 축약이 있다.

보기 2					
	<u>어간</u>	<u>어미</u>	<u>표기</u>	<u>발음</u>	
ㄱ.	낱- +	-고 →	낱고	[나코]	
ㄴ.	않- +	-아 →	않아	[아나]	
ㄷ.	지- +	-어 →	저	[저]	
ㄹ.	돌리- +	-어 →	돌려	[돌려]	
ㅁ.	오- +	-아서 →	와서	[와서]	

- ① ㄱ
 ② ㄴ
 ③ ㄷ
- ④ ㄹ
 ⑤ ㅁ

07 ‘음운의 대치’와 이에 대한 예를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운의 대치	예
①	음절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오면 이 일곱 자음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히읇 → [히읇]
②	음절 끝의 폐쇄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ㄴ, ㅁ, ㅇ’으로 발음되는 현상	닫는다 → [단는다]
③	‘ㄴ’이 ‘ㄹ’ 앞이나 뒤에 올 때 ‘ㄹ’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순례 → [술례]
④	끝소리 ‘ㄷ, ㅌ’이 모음 ‘ㅣ’와 만났을 때 쉼 입천장소리 ‘ㅈ, ㅊ’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젓히다 → [저치다]
⑤	두 개의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거나 끝자리가 ‘ㄴ, ㅁ’인 용언 어간에 예사소리로 시작되는 어미가 이어질 때 뒤의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ㅈ’이 ‘ㄱ, ㄷ, ㅂ, ㅅ, ㅈ’과 같은 된소리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	막다 → [막따]



① 형태소

‘익다’와 ‘읽다’의 경우 ‘익’과 ‘읽’에 의해 뜻이 구분된다. 이처럼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 한다.

(1) 형태소의 분류

구분 기준	명칭	개념	존재 양상	예
자립성 유무	자립 형태소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사과, 그, 하나, 그런 매우, 어머니
	의존 형태소	둘 이상 결합해야 쓰일 수 있는 형태소	동사형용사의 어간, 어미, 조사, 접사 등	먹-다, 예쁘-다, [네-]가 맨-[손], [뎌]-개
실질적 의미 유무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형용사의 어간, 관형사, 부사, 감탄사 등	사과, 그, 하나, 먹-다, 예쁘-다, 그런 매우, 어머니
	형식 형태소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형태소	접사, 조사, 동사형용사의 어미 등	맨-[손], [뎌]-개, [네-]가 먹-다, 예쁘-다

(2) 이형태 : 동일한 형태소이나 다른 형태를 가진 형태소

① 음운론적 이형태 : 동일한 형태소가 음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소

예.보.기

이/가, 을/를, 과/와, -았-/—었—

② 형태론적 이형태 : 음운론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이형태

예.보.기

—었-/—였—, —어라/—여라/—거라/너라

② 단어

‘철수가 책을 읽다.’란 문장에서 ‘철수, 책’ 등과 같이 자립 형태소나 ‘가, 을’과 같이 자립 형태소에 붙으면서 쉽게 분리되는 말과 동사형용사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된 어절을 단어로 한다.

③ 단어의 형성법

(1) 파생어 :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①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예.보.기

맨- : 맨손, 맨발 들- : 들볶다 시- : 시퍼렇다

② 접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

예.보.기

—님 : 선생님, 사장님 —개 : 덮개 —히 : 먹히다

(2) 합성어 :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① 단어의 배열법에 따른 분류

통사적 합성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르는 합성어	㉠ 돌부처, 집안, 큰집, 천지(天地), 마소, 걸어가다, 재미있다
비통사적 합성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르지 않는 합성어	㉡ 꺾쇠, 접칼, 누비옷, 굶주리다, 날뛰다, 오르내리다, 검푸르다, 높푸르다, 척척박사, 부슬비

② 의미 관계에 따른 분류

대등 합성어	앞 뒤 성분이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합성어	㉢ 남녀, 앞뒤, 부모, 형제, 마소, 두셋
종속 합성어	앞 성분이 뒤 성분을 수식하는 합성어	㉣ 돌다리, 비빔밥, 호두과자, 꽃게, 책상다리, 봄비
융합 합성어	앞 뒤 성분이 원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합성어	㉤ 돌아가다 ⇨ 죽다, 밤낮 ⇨ 늘, 춘추 ⇨ 나이

4 품사의 분류

(1) 체언 : 문장에서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자리에 오는 말

① 명사 :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용 범위	보통 명사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들에 두루 쓰이는 명사	㉠ 가방, 신발
	고유 명사	특정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쓰이는 명사	㉡ 대한민국, 광화문
자립성 유무	자립 명사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	㉢ 하늘, 구름
	의존 명사	꾸며 주는 말이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	㉣ 것 바

② 대명사 :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단어

지시 대명사	㉠ 이것, 저것, 그것, 무엇, 여기, 저기, 거기, 어디	
인칭 대명사	1인칭	㉡ 나, 저, 우리, 저희, 소인, 朕(朕)
	2인칭	㉢ 너, 자네, 너희, 당신, 그대, 여러분
	3인칭	㉣ 그, 이분, 저분, 그분, 이이, 저이, 그이
	미지칭	㉤ 누구
	부정칭	㉥ 아무
	재귀칭	㉦ 저, 저희, 자기, 당신

③ 수사 :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

양수사	수량을 나타냄	㉠ 하나, 둘, 셋, 한둘, 두세, 서넛, 일 이, 삼, 천, 만
서수사	순서를 나타냄	㉡ 첫째, 둘째, 셋째, 제일, 제이, 제삼

개념어·어휘·크리닉

• 품사의 분류

형태	갈래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관계언	조사	조사 서술격조사
		동사	
	용언	형용사	

개념어·어휘·크리닉

- 미지칭 : 대상의 이름이나 신분을 모를 때 묻는 인칭.
- 부정칭 :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인칭
- 재귀칭 : 한 번 나온 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쓰이는 인칭

(2) 용언 :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말

① 동사 :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자동사	움직임이 그 주어에만 관련됨	㉠ 가다, 놀다, 살다
타동사	움직임이 다른 대상과 관련됨	㉡ 먹다, 보다, 잡다

② 형용사 :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성상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 달다, 쓰다, 예쁘다, 밍다
지시 형용사	지시성을 나타냄	㉣ 이러하다, 저러하다, 그러하다

③ 용언의 활용 :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는 것

- 어간 : 용언이 문장에서 쓰일 때 고정된 부분
- 어미 : 어간 뒤에 붙어 활용하여 변하는 부분

어말 어미	종결 어미	한 문장을 종결되게 하는 어미	㉤ -다, -느냐, -구나
	연결 어미	다음 말에 연결하는 구실을 하는 어미	㉥ -고, -(으)며, -(으)나
	전성 어미	다른 품사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	㉦ -기, -(으)고, -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앞에 붙는 어미		㉧ -사-, -었-, -겠-

※ 관형사형 전성 어미의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으)ㄴ
과거	-(으)ㄴ	-(으)ㄴ
	-던	
미래	-(으)ㄹ	-(으)ㄹ

④ 불규칙 활용 용언 : 어간이나 어미가 모습을 달리하여 활용하는 용언.

구분	개념	용례
ㄷ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는 용언.	듣 + -어 → 들어 깨닫 + -어 → 깨달아
ㅂ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ㅂ'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ㅍ'으로 변하는 용언.	돕 + -아 → 도와 무겁 + -어 → 무거워
ㅅ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ㅅ'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	잇 + -어 → 이어 낫 + -아 → 나아
ㄹ불규칙용언	어미의 '-아/-어'를 '-라/-려'로 바꾸고 어간말음 '으'가 탈락하는 용언.	흐르 + -어 → 흘러 부르 + -어 → 불러
ㄴ불규칙용언	'어'로 시작되는 어미들에서 '어' 대신 '려'를 사용하는 용언.	이르(췌) + -어 → 이르러 푸르 + -어 → 푸르려
ㅇ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ㅇ'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	푸 + -어 → 퍼
ㅎ불규칙용언	어간말음 'ㅎ'이 'ㄴ, ㄹ, ㄷ, ㅂ, ㅅ'의 자음 앞이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용언.	노랗 + -아서 → 노랗서 파랗 + 시 + 어 → 파랗시어
ㅇ불규칙용언	모음 '어'로 시작되는 어미가 '어' 대신 '여'를 사용하는 용언.	공부하 + 어 → 공부하여
ㄱ불규칙용언	명령형 어미 '아라' 대신 '거라'를 사용하는 용언.	가 + -아라 → 가거라
ㄴ불규칙용언	명령형 어미 '아라' 대신 '너라'를 사용하는 용언.	오 + -아라 → 오너라

(3) 수식언 :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말

① 관형사 : 체언 앞에 놓여서 주로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지시 관형사	어떤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킴	예 이런, 저런, 그런 이 사람, 저 사람
성상 관형사	사물의 모양,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예 새 옷, 흰 신발, 순 우리말, 다른 사람
수 관형사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냄	예 한 사람, 둘째 딸, 제삼 회

② 부사 : 주로 용언이나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단어

성분 부사	문장의 어느 한 부분만을 수식함	예 자동차가 빨리 달린다.
문장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함	예 제발, 그 음악은 듣지 마세요.
접속 부사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이어줌.	예 책을 읽었다. 그리고 커피를 마셨다.

(4) 관계언 : 앞말이 그 문장의 다른 말에 대해 갖는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말

① 격조사 :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가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예.보.기

•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동생은 매우 기뻐했다.

주격 조사 보격 조사 목적격 조사

• 그것은 언제나 나의 희망의 대상이다.

관형격 조사 서술격 조사

• 철수야, 영호에게 가 봐.

호격 조사 부사격 조사

② 접속 조사 :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

예.보.기

밤과 배와 사과를 샀다.

접속 조사

③ 보조사 :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

예.보.기

철수만 우등상을 탔다. 철수도 우등상을 탔다.

(오직)

(역시)

신부가 손은 예쁘다.

(대조)

(5) 독립언 :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이 있는 말로, 감탄사가 여기에 속한다.

• 감탄사 : 화자가 자신의 느낌이나 의지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

예.보.기

아, 오, 야, 아이고, 아뿔싸, 이키, 흥, 영차, 애게, 앓아라, 예, 여보셔요, 뭐,

구구, 글썸, 왜, 아니.

01 <학습 활동>을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관형사형 어미의 형태는 시제 및 단어의 품사에 의해 결정된다. [자료]에서 밑줄 친 단어의 품사와 시제를 분석하여 그 단어에 쓰인 어미가 [표]의 ㉠~㉣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자료]

- ㉠ 하늘에 뜬 태양
- ㉡ 우리가 즐겨 부르던 노래
- ㉢ 늘 푸르던 하늘
- ㉣ 운동장에 남은 아이들
- ㉤ 네가 읽는 소설
- ㉥ 이미 아이들로 가득 찬 교실
- ㉦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

[표] 관형사형 어미 체계

	동사	형용사
현재	-는	㉠
과거	㉡	㉢
	-던	
미래	-(으)㉣	-(으)㉤

-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② ㉡의 '부르던'과 ㉢의 '푸르던'에 쓰인 어미 '-던'은 ㉢에 해당한다.
- ③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에 해당한다.
-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은 ㉤에 해당한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의 종류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의 '남은'과 ㉥의 '찬'에 쓰인 어미 '-(으)㉣'은 동사의 과거 ㉢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의 '뜬'에 쓰인 어미 '-(으)㉣'은 동사의 현재에 해당한다. ② ㉡의 '부르던'의 '-던'은 동사의 과거 ㉢에 해당한다. ④ ㉤의 '읽는'에 쓰인 어미 '-는'은 동사의 현재 ㉠에 해당한다. ⑤ ㉦의 '빠른'에 쓰인 어미 '-(으)㉣'은 형용사의 현재 ㉤에 해당한다.

✓ 해답 ③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미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미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A]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롭고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단’,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02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아-’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석** 형태소의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깨뜨리는’은 ‘깨+뜨리+는’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깨’는 어미를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어근이고 ‘-뜨리다’는 강세의 의미가 있으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파생 접사이다. 여기서 ‘-다’는 활용이 되는 어미에 해당한다.

● **오답 바꾸기** ① ‘아기장수’는 ‘아기’와 ‘장수’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소이므로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예이다. ② ‘맨손’은 ‘맨’과 ‘손’으로 나누었을 때 ‘맨’은 뜻을 더하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고 ‘손’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으므로 파생 접사와 어근이 결합된 예이다. ③ ‘쌍인’은 ‘쌍+이+ㄴ’으로 분석되는데 ‘쌍’은 어미를 필요로 하나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어근이고 ‘-이’는 피동의 의미가 있으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파생 접사이다. ⑤ ‘모습이’는 ‘모습+이’로 분석되는데 모습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소이고 명칭을 나타내므로 체언이다. ‘-이’는 체언에 결합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쓸 수 없으므로 조사이다.

✓ **해답** ④

0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 (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 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누문 누구 (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혼 벗은 누고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형태소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 찾기** (가)에서 고어 ‘누’는 현대어 ‘누구’에 대응되므로 ‘누’가 대명사이고, ‘누고’는 현대어 ‘누구인가’인가와 대응되므로 ‘누’는 대명사이고 ‘고’는 ‘-인가’에 해당하는 보조사(현대어에서는 ‘-아’는 조사, ‘-나’는 의문형 종결 어미에 해당)에 해당한다. 마찬가지로 ‘누구’의 ‘누’는 대명사이고 ‘-구’는 보조사이다.

● **오답 비루기** ② ‘누고’가 ‘누구’에 대응되고 ‘누구’가 ‘누구’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누구’에 조사 ‘-를’과 ‘-에게’가 각각 결합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에서의 ‘누’가 (나)에서의 ‘누고’, ‘누구’에 대응되고 있고 ‘고’, ‘-구’는 보조사로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의 ‘누고’와 ‘누구’ 둘 다 (다)에서의 ‘누구’에 대응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①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끓이’의 ‘먹-’과 ‘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히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0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빈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문법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라는 문장에서 ‘놀이’는 공간을 수식하는 관형어이고, 품사는 ‘놀다’ 어간 ‘놀-’에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어 명사이다. 따라서 서술 기능이 없다.

● 오답 바꾸기 ① ‘비워’의 어간은 ‘비우-’이고 ‘빈다’의 어간은 ‘빈-’이다. ②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문장에서 ‘높이’는 ‘나는’이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이다. ④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사동 접미사로 사동 접미사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는 동사에는 결합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돋다’에는 ‘돋구다’ 형태로 ‘-이-’가 아니라 ‘-구-’가 결합된다. ⑤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라는 문장에서 ‘오시기’는 ‘할아버지께서는’을 서술하는 서술어이고 ‘오시기’에서 ‘-기’는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 매 답 ③

0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형이 동생을 울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주 감졌다.]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사동 접미사와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사동 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있는데 이들이 결합되면 ‘-게 하다’의 의미가 된다.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란 문장에서 ‘숨기었다’의 준말인 ‘숨겼다’에는 사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어 ‘숨게 했다’란 의미가 들어 있다. 사동 접미사에는 ‘-이-, -히-, -리-, -기-’ 등이 있는데 이들이 결합되면 ‘-어 지다’의 의미가 된다. ‘피곤해서 눈이 자주 감졌다.’란 문장에서 ‘감기었다’의 준말인 ‘감졌다’에는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어 ‘감기어 졌다’란 의미가 들어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둘 다 ‘-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사동 접미사가 사용되었다. ② ㉠은 ‘-어 지다’란 의미이므로 피동 접미사가 사용되었고 ㉡은 ‘-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사동 접미사가 사용되었다. ③ 둘 다 ‘-어 지다’의 의미이므로 피동 접미사가 사용되었다. ⑤ 둘 다 ‘-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사동 접미사가 사용되었다.

✓ **해답** ④

06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①부

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②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②조

①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②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동 【(…과)…을】

①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함께하다①.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②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함께하다②.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②①'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 **문항 분석** 단어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같이[2①]’은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인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에서는 ‘같이’ 다음에 ‘차가운’ 등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서는 ‘매일같이’ 다음에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 오지 않고 ‘지하철’이라는 명사가 오고 있어 ‘같이[2①]’의 용례가 될 수 없다. 이때의 ‘같이’는 ‘같이[2②]’의 용례로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같이’ ‘[1㉠]’에서 ㉠은 부사임을 나타내고 ‘[2㉡]’에서 ㉡은 조사임을 나타낸다.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에서 둘 다 ‘함께’의 의미가 공유되어 있어 동일 어근의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같이하다’는 ‘같이’에 접미사 ‘-하다’가 붙은 파생어이자 복합어이다.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를 ‘【(…과)…을】’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과)’는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다는 표현이므로 두 가지 문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를 사용하면 세 자리 서술어이고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⑤ ‘같이하다’ ①의 용례로 ‘=함께하다①’과 그 의미나 용법이 같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매 답** ②

07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조사, 어간, 선어말 어미의 공통점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함 원리로 정답 찾기 조사 은/는은 체언에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어간 ‘-듣-’은 어미와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는가 모음으로 시작되는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었-’은 반드시 어간과 어미 사이에 결합해야만 쓰일 수 있고 앞모음이 양성 모음인가 음성 모음인가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한다. 이러한 점의 공통점은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이다.

● 오답 바꾸기 ①, ②, ④, ⑤ 조사 ‘은/는’은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지만 어간과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단어의 자격이 없다. 또 어간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낸다.

✓ 해답 ③

08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 어제 뭐 했니?
 B :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② ㉡ [A :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③ ㉢ [A : 감기 걸렸다면?
 B :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잠겼어.
 ④ ㉢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빴어.
 ⑤ ㉣ [A : 너 오늘도 바빠?
 B :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선어말 어미 ‘-았-/었-’의 용법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장 원리로 정답 찾기**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빴어.’라는 대화에서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은 둘 다 과거를 나타내므로 ㉠의 예가 된다.

● **오답 비루기** ① A의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 ‘어제’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② A의 과거를 나타내는 단어 ‘아까’라는 말로 보아 적절하다. ③ B의 ‘아직도’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적절하다. ⑤ B의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라는 말에서 ‘오늘’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밤’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④

09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

- ①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②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에’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에 [2]’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 [3]’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에 [1] ①’의 용례에 쓰인 ‘에’는 ‘에서’로 바꿔 쓸 수 없군.
- ⑤ ‘에 [1] ②’의 용례에 쓰인 ‘에’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 양 분석 조사의 쓰임이 잘못 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양 원리로 정답 찾기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문장에서 ‘학교에서’는 주어가 아니라 부사어이다. 서술어가 ‘한다’이고 이에 대한 주어는 ‘사람들이’이다.

● 오답 바꾸기 ① ‘에’는 [2]에 접속 조사로 쓰인다고 나와 있지만 ‘에서’는 격 조사로만 표시되어 있다. ②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밥에’, ‘국에’, ‘떡에’라는 성분은 그 자격이 같다. ④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라는 문장을 ‘동생은 지금 집에서 없다.’라고 고치면 어법에 어긋난다. ⑤ ‘형은 방금 집에 왔다.’라는 문장을 ‘형은 방금 집에서 왔다.’라고 고치면 뒷 문장은 ‘형은 방금 집으로부터 왔다.’란 의미가 되어 그 뜻이 달라진다.

✓ 예 답 ③

1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 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단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지시어의 용법을 잘못 파악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 ㉣의 ‘저희’는 선생님의 ‘아이들’을 지시하는 말로 3인칭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은 ‘손에 들고 있는 그거’에 해당한다. ② ㉡은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와 관련되므로 적절하다. ③ ㉢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말로 3인칭 극존칭에 해당한다. ④ ㉣은 ‘우리 집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청자인 학생을 포함하지 않는다.

✓ **해답** ⑤

11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 |
|---|--|
| ㉠ | ○-지기 :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꾸러기 :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장이 :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접미사를 적절하게 활용한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핵심 원리로 정답 찾기 ‘한과장은’ ‘한과와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라 했는데 이는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과 유사한 의미가 된다.

● 오답 배리기 ① 유행지기는 ‘유행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므로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② 산꾸러기는 ‘산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③ 노래꾸러기는 ‘노래가 심하거나 많은 사람’이란 뜻이므로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④ 농담장은 ‘농담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므로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과 다르다.

✓ 해답 ⑤

12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빼다	주차장에서 차를 뺐다.	대다
	(가)	넣다
	적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뺐다.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뺐다.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찾다
④	새집 냄새를 뺐다.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뺐다.	들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제시된 단어의 의미적 반의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짱 원리로 정답 찾기** 넣다의 반의어는 빼다이므로 (가)의 예문으로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뺐다.’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이 예문의 뺐다는 뽑았다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적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라는 문장에서 빼다는 해약하란 의미인데 이의 반의어는 ‘가입하다’이다. 들다는 가입하다의 동의어이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④ 모두 짱 원리로 정답 찾기에서 풀이한 내용과 어긋난다.

✓ **해답** ⑤

13 <보기>를 바탕으로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 / *쳤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 / *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 / *상냥하자 차분하다.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 / *먹자 공부해라. / 공부하자. / 공부할래?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②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③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가 달라야 하는군.
 ④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사’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⑤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사’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New Theory & Thinking Method

● **문항 분석** 유사한 의미를 지닌 어미의 차이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ㄱ, ㄴ과 ㅁ을 보면 ‘-(으)면서’는 다양한 문장 유형 즉 평서형(불렀다), 명령형(공부해라), 청유형(공부하자), 의문형(공부할래?) 등으로 쓰임을 보여주나 ‘-자’는 평서형(불렀다)에 쓰일 수 있으나 명령형(공부해라), 청유형(공부하자), 의문형(공부할래?) 등으로 쓰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치면서’, ‘나서자’는 현재형으로 문법에 맞다고 하였고 ‘나섰자’, ‘쳤으면서’ 등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들어간 과거형으로 문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③ ㄴ에서 ‘-자’로 연결된 문장의 앞문장의 주어는 ‘동수가’이고 뒷문장의 주어는 ‘비가’이므로 서로 주어가 다르고 문법에 맞다고 하였다. ㄷ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는 ‘동수가’인데 문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④ ㄹ에서 ‘동수는 상냥하면서 차분하다.’는 문법에 맞다고 하였고 ‘동수는 상냥하자 차분하다.’는 문법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⑤ ㅂ의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라는 구절은 부정 표현과 어울려 뉴스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지 동사의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 **해답** ②

14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건설+·되다 ¹ →건설되다	못+·되다 ² →못되다
발견+·되다 ¹ →발견되다	참+·되다 ² →참되다
평가+·되다 ¹ →평가되다	막+·되다 ² →막되다
처리+·되다 ¹ →처리되다	영광+·되다 ² →영광되다
(용례)	(용례)
·다리가 <u>건설</u> 되었다.	· <u>못된</u> 장난을 치다니.
·유물이 <u>발견</u> 되었다.	· <u>영광</u> 된 자리에 서다.

- ① ‘-되다’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갖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New Theory & Thinking Meth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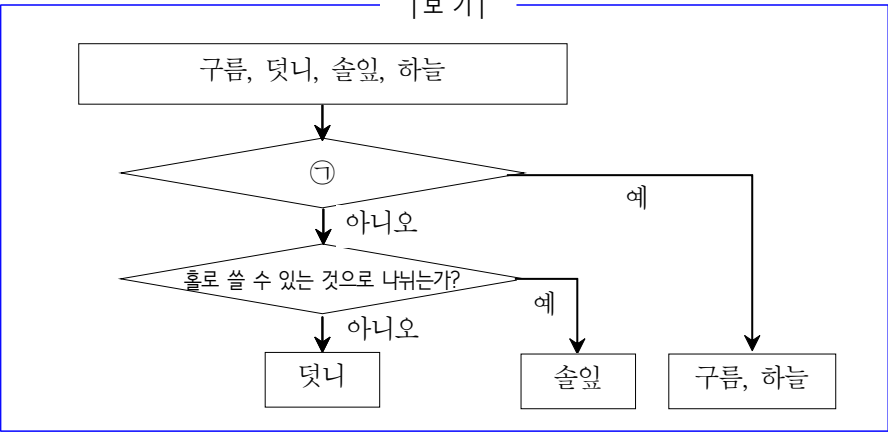
● **문항 분석** 접미사의 활용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항 원리로 정답 찾기** ‘-되다’은 ‘건설되었다’에서 보듯 ‘스스로 이루어지다’란 의미를, ‘-되다²’는 ‘영광된’에서 보듯 ‘그런 상황의’란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이다.

● **오답 비루기** ① ‘건설되다’, ‘평가되다’ 등으로 보아 적절하다. ② ‘참’은 명사이고 ‘못’은 부사이므로 적절하다. ③ ‘건설, 발견’ 등은 명사이고 여기에 ‘-되다’가 붙으면 동사가 된다. 또 ‘못되다, 참되다’ 등은 형용사이므로 적절하다. ④ ‘평가, 처리’ 등은 동작성이 있는 명사이고 ‘막, 영광’ 등은 동작성이 없으므로 적절하다.

✓ **해답** ⑤

01 <보기>는 단어의 분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에 들어갈 단어의 분류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03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품사의 통용'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 기 |

단어 가운데는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품사의 통용(通 용)이라고 한다.

[예문 보기]

(가)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명사>

나도 그 사람만큼 땀 수 있다. <조사>

(나) 그 애는 열을 배우면 백을 안다. <수사>

열 사람이 백 말을 한다. <관형사>

(다) 바람이 아니 분다. <부사>

아니! 어디 가겠단 말이냐. <감탄사>

- ① ☐ 네 뜻대로 하렴.
☐ 본 대로 말하겠습니다.
- ② ☐ 바람이 부나 보다.
☐ 밤늦도록 그림책을 보다.
- ③ ☐ 한 평생 편할 날이 없다.
☐ 평생을 바쳐 봉사하였다.
- ④ ☐ 사람 다섯이 모여 들었다.
☐ 다섯 사람이 함께 일했다.
- ⑤ ☐ 오늘은 어머니께서 돌아오시는 날이다.
☐ 오늘 우리는 위대한 창조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04 <보기>는 사전에서 ‘지다’의 의미를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다¹ [동사]

1. 해나 달이 서쪽으로 넘어가다.
2. 꽃이나 잎 따위가 시들어 떨어지다.
3. 묻었거나 붙어 있던 것이 닳이거나 씻겨 없어지다.

지다² [동사]

1.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상대에게 꺾이다.
2. 어떤 요구에 대하여 마지못해 양보하거나 들어준다.

지다³ [동사]

1.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
2. 어떤 좋지 아니한 관계가 되다.

[보조동사]

1. 남의 힘에 의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입음을 나타내는 말.
2. 앞말이 뜻하는 대로 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

지다⁴ [동사]

1. 물건을 꿰어서 등에 었다.
2. 무엇을 뒤쪽에 두다.
3. 줄이나 포승 따위에 묶이다.

- ① ‘지다’, ‘지다²’, ‘지다³’, ‘지다⁴’가 별개의 표제어로 서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이다.
- ② ‘지다’의 뜻으로 사용한 예문으로 ‘옷에 얼룩이 젖서 걱정이네.’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 ③ ‘지다²’의 유의어로는 ‘패하다’가 있다.
- ④ ‘지다³’의 뜻으로 사용한 예문으로 ‘서산에 노을이 지다.’라는 문장을 들 수 있다.
- ⑤ ‘지다⁴’의 반의어로 ‘벗다’가 있다.

05 다음 중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파생 접사는 어근의 앞에 결합하는 접두사와 어근의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가 있다.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 의미를 더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는데, 접두사와 달리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 ① 장독을 덮개로 덮어라.
- ② 텔레비전 소리를 낮추어 보렴.
- ③ 요즈음은 벌이가 시원치 않다.
- ④ 서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 ⑤ 멋진 그림을 바가지에 새겨 넣었다.

06 다음 밑줄 친 말 중, <보기>의 ㉠과 같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된 경우가 아닌 것은?

| 보 기 |

- 본용언 :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 용언
- 보조 용언 : 다른 말에 기대어 그 말의 뜻을 도와주는 용언
- 예 나는 밥을 다 ㉠먹어 버렸다.

- ① 길에서 우연히 그와 만나게 되었다.
- ②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대학에 가야겠다.
- ③ 그 책을 읽은 감상을 공책에 적어 두었다.
- ④ 쓰레기는 한꺼번에 모아 버리는 것이 좋다.
- ⑤ 그 순간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07 <보기>는 사전에서 찾은 파생 접사 ‘-히-’의 기능이다. 다음 중 [대]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히- : 접사

[가]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굳히다 / 굽히다 / 젖히다

[나] (일부 동사 어간 뒤에 붙어) ‘피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예) 닫히다 / 뽑히다 / 얹히다

[다] (일부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예) 붉히다 / 넓히다

- ① 오래 묵힌 김치로 찌개를 만들면 맛이 정말 좋다.
- ② 집단 따돌림 등으로 친구들을 괴롭히면 벌을 받는다.
- ③ 어제는 길이 막혀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했다.
- ④ 가을날 새벽녘에 들길로 나가 보면 풀잎에 이슬이 맺혀 있다.
- ⑤ 도시의 가게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행인들의 발길도 끊어진다.

제4부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화법·작문·정답 및 해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문제 01]

01 ③	02 ⑤	03 ②	04 ④	05 ①
06 ②	07 ④			

01 ③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각국의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가 서로 다른 형태의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자의성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변화한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연속적인 것을 끊어서 표현한다는 속성이다. ⑤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내용에 드러난 언어의 속성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보기>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속성은 창조성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언어가 사회의 공인 없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속성이다. ② 언어가 대상의 속성을 추상화하여 형성되는 속성이다. ③ 언어와 의미가 아무런 관련 없이 맺어진다는 속성이다. ④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운용된다는 속성이다.

03 ②

● **문항 분석** 실제 발음상 제시된 음운이 다 실현되는 단어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좋다’는 [조타]로 발음되는데, ‘ㅈ’은 파찰음 예사소리이고 ‘ㄱ’은 원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이다. 또 ‘ㅌ’은 파열음 거센소리이며 ‘ㅏ’는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이다.

● **오답 비루기** ① [실타]의 ‘ㄹ’은 유음이다. ③ [안타]의 ‘ㄴ’은 비음이다. ④ [잘따]의 ‘ㅌ’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⑤ [절따]의 ‘ㅌ’은 파열음 된소리이다.

04 ④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학문’이 [항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의 예이다.

● **오답 비루기** ① ‘ㅈ’이 ‘ㅉ’으로 교체되었다. ② ‘ㄱ’이 ‘ㄲ’으로 교체되었다. ③ ‘ㅎ’이 탈락되었다. ⑤ ‘ㅎ’과 ‘ㄱ’이 ‘ㄲ’으로 축약되었다.

05 ①

● **문항 분석** 제시된 음운 변동의 사례와 관련이 없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는 ‘약이’ [낙]으로 바뀌었으므로 ‘ㄴ’ 첨가 현상이다. ‘콩엿’도 [콩년]으로 발음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② ‘복낙이’ [봉낙]으로 발음되고 ‘먹는’도 [멍는]으로 발음된다. ③ ‘뭇’이 [뭇]으로 바뀌었다. ④ ‘압’이 [압]으로 바뀌었다. ⑤ ‘물납이’ [문납]으로 바뀌었다.

06 ②

● **문항 분석** 축약의 예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않아’는 [아나]로 발음되므로 ‘ㅎ’이 떨어져 나가는 탈락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과 ‘ㄱ’이 만나 ‘ㄲ’으로 축약되었다. ③, ④ 둘 다 ‘ㅣ’와 ‘ㄴ’이 만나 ‘ㄴ’으로 축약되었다. ⑤ ‘ㄹ’과 ‘ㅏ’가 만나 ‘ㅏ’로 축약되었다.

07 ④

● **문항 분석** 음운 대치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쌍 원리로 정답 찾기** ‘젓하다’에서는 ‘ㅈ’이 ‘ㅎ’을 만나 ‘ㅉ’으로 발음되므로 축약이 일어난다.

● **오답 비루기** ① ‘ㅎ’이 대표음 ‘ㄷ’으로 바뀌었다. ② ‘ㄷ’이 비음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발음된다. ③ ‘ㄴ’이 ‘ㄹ’ 앞에 와서 ‘ㄹ’로 바뀌어 발음된다. ⑤ ‘감다’는 끝자리가 ‘ㄷ’인 용언 어간에 안울림 예사소리 ‘ㄷ’이 만나 ‘ㄸ’이 된소리 ‘ㄸ’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문법과 어문 규정 유형문제 02]

01 ⑤	02 ⑤	03 ③	04 ②	05 ⑤
06 ④	07 ②			

01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단어의 형성 원리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구름, 덧니, 솔잎, 하늘'의 네 단어 중 '덧니, 솔잎'은 두 개 형태소로 되어있고 '구름, 하늘'은 하나의 형태소로 되어있다. 또 형태소는 '하나'의 직접 구성 요소라고 표현할 수 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모두 다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이다. ② 모두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③ 모두 고유어이다. ④ '덧니'는 파생어이고 '솔잎'은 앞 성분이 뒤 성분에 종속적인 합성어이다.

02 ⑤

● 문항 분석 제시된 불규칙 원리에 어긋나는 사례를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에서 '들르어'가 '들러'가 된 것은 '아' 대신 '라'가 온 것이 아니고 'ㄹ'이 떨어져 나가고 'ㄴ'이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으' 탈락으로 불규칙이 아니라 음운 규칙에 해당한다.

● 오답 비루기 ㉡ 'ㄷ'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ㄹ'로 바뀌었다. ㉢ 'ㅂ'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우'로 바뀌었다. ㉣ 'ㅅ'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되었다. ㉤ 어미의 '어'가 '라'로 바뀌고 어간말음 '으'가 탈락되었다.

03 ③

● 문항 분석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③의 첫 문장의 '평생'은 관형사 '한'의 수식을 받고 있어 명사이며 둘째 문장의 '평생'은 조사 '을'이 결합되었으므로 명사이다.

● 오답 비루기 ① '뜻대로'의 '대로'는 조사 '본 대로'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② '부나 보다'의 '보다'는 보조 형용사 '그림책을 보다'의 '보다'는 동사이다. ④ '사람 다섯'의 '다섯'은 수사이고, '다섯 사람'의 '다섯'은 수 관형사이다. ⑤ '오늘은'의 '오늘'은 명사 '오늘 우리는'의 '오늘'은 부사이다.

04 ②

● 문항 분석 동음이의어의 의미나 용례가 잘못된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옷에 얼룩이 젖서 걱정이네.'라는 문장

에서 '젖서'는 '지다'³ [동사] 1.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 오답 비루기 ① 사전에서 별개의 표제어로 제시하는 경우는 동음이의어를 나타낸다. ③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상대방에게 꺾이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패배하다 등이 유의어가 된다. ④ '지다'의 뜻에 '어떤 현상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다.'란 의미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벗다'는 '지다'⁴의 '물건을 꿰어서 등에 엮다.'란 뜻의 반의어이다.

05 ⑤

● 문항 분석 접미사가 품사를 파생시킨 경우가 아닌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바가지'는 '박'에 접미사 '-아자'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나 둘 다 품사는 명사이다.

● 오답 비루기 ① '났다'란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되었다. ② '낮다'란 형용사에서 동사로 파생되었다. ③ '벌다'란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되었다. ④ '맞다'란 동사에서 부사로 파생되었다.

06 ④

● 문항 분석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쓰레기는 한꺼번에 모아 버리는 것이 좋다.'란 문장에서 '모아'도 본동사이고 '버리는'도 본동사이다.

● 오답 비루기 ①, ②, ③, ⑤ 앞 용언 다음에 '가지고'란 말을 붙여 뒤 용언을 연결시켰을 때 문장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버렸다.'란 문장은 성립하지만 '그와 만나가지고 되었다'란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07 ②

● 문항 분석 접미사 '-히-'의 용법에 적절한 문장을 알아내는 문제이다.

● 정답 원리로 정답 찾기 '괴롭히다'에서 '괴롭다'는 형용사이고 '친구들을 괴롭히면'은 '친구들을 괴롭게 만들면'이란 의미이므로 사동의 뜻이 들어있다.

● 오답 비루기 ① '묵히다'에서 '묵다'는 동사이고 '오래 묵힌 김치는 오래 묵게 한 김치'의 의미이므로 사동의 뜻이 들어있다. ③, ④, ⑤ '막다', '땀다', '닫다' 셋 다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이다.